

나눔터

펴낸곳: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날: 1992년 10월 28일 / 계간 발행 / 주소: 서울 서초구 우체국 사서함 45호 (우.137-600) / 전화: 02) 525-5837~8



보관용

9월 23일 기독교회관에서 여성단체연합 성폭력 특위 주관의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 대회.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내가 겪은 성폭력 (이숙희)	11
여기는 상담실	4	고발: 우리 사회의 성문화 (박미라)	12
우리의 외침 / 성폭력 사건일지	5	상담원 교육을 받고 (정화순)	12
특집 : 처녀막	6	지상상담 (상담: 유재경)	13
연재기획 : 강간, 바로 압시다		나눔터 애깃길: 업보 (안일순)	14
직장내 성폭행 (김지혜)	8	성폭력 상담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15
내가 경험한 우리아이 성교육			
뽀뽀와 키스 (이계중)	11		

성폭력 특별법 올바른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 : 장윤경 /나눔터 기자, 상담원

여성계에서는 지난 해부터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성폭력은 피해여성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폭력관계법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질차상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두번 세번의 피해를 입힐 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여성계의 활동이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국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 민주당, 민주당, 국민당 등 4개 특별법 시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성계로서는 국회법사위 합의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고 성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3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여연 성폭력 특위 주관으로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 대화"가 있었다.**

이 공동결의대회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회의 법사위원회 법사위원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민자당에서 제출한 성폭력특별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공동결의대회에서 다시 강조된 여연 성폭력특위의 성폭력 특별법 쟁점은 민주당, 민자당안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것. ② 친고제를 폐지하고 대신 반의사불벌제로 규정하는 법률 ③ 동거자나 부부사이에서 매맞고 간강당할 때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 ④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재정지원을 해줄 것 등이다.

첫째 현행 형법 제32장에서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해 피해여성에게 정조를 상실했다는 측면을 부각시켜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피해당사자가 더 죄의식을 느끼고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여연 성폭력특위에서는 성폭력은 여성의 순결상실이 아닌 인권 침해이므로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규정해서 가해자가 정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폭력의 범주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음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 민자 양당은 현행 형법의 '정조에 관한 죄'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둘째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순결상실감, 가해자에 의한 고소취소 종용 등으로 고소를 취하면 다시는 고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피해직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충격과 갈등으로 고소를 결정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며 어린이 강간의 경우는 사춘기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강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소기간을 놓치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연과 민주당측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약점을 고려해 친고죄 대신 '반의사불벌제'를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라도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고소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하게 했지만 여전히 친고죄를 고수하고 있다.

세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안으로 여연에서는 등록제를 내세우는 데 반해 민자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한하며 시장,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한 규정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허가취소 조항 등을 내놔 그동안 성폭력 대책활동을 벌여온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규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네째 여연안에서는 '상시적 성적관계에 있는 강간' 규정으로 부부강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가정사 불간섭주의'라는 수사기관의 관행으로 방치되어온 아내강간이 처벌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강간문화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여연의 주장이다.

다섯째 현행법 절차상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적증거를 우선 시하고 16세이하 어린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연안에서는 성폭력 관련사건 재판을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진술시 피해자가 보호자나 다른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전 조사요청권과 가사조사관 의견제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벽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나날이 늘어만 가는 퇴폐향락 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간과된 상태에서 피해당사자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근원적인 해결과 피해여성의 치유를 위한 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특히 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노력으로 국회에 여연의 특별법시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성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은 전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문제는 어떠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되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 공동결의대회에서 강조되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입법청문회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면서 부디 피해여성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사회에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률제정을 기대해 본다.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개최

본 상담소는 지난 8월 22일에 직장내 성폭행을 주제로 제3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사연구부(부장 전연희)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상담원, 발기인, 타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성폭행이란?
2. 직장내성폭행 발생원인 및 피해자가 겪는 문제
3. 상담사례 분석
4. 직장내성폭행 예방 및 대책
5. 사례발표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10월 중 소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상담소 알리는 스티커 2만개 제작

보다 많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전화번호와 활동을 알리는 스티커를 2만개 제작하여 각 학교, 직장, 병원, 지하철역, 공단 등에 배포중에 있다.

제2기 상담원 교육생 숙박교육 실시

지난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양평 페밀리 프라자에서 2기 상담원 교육생들을 위한 M.T가 있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영을 하고 밥을 지새우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2기 교육생과 상담소 식구들 간에 입간적인 유대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상담원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

1, 2기 상담원 한자리에 모여

지난 9월 3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1·2기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게임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상담사례에 대한 느낌을 서로 교환했다.

이 자리는 정해진 날짜에만 나오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만나고 앞으로의 상담에 격려가 될 수 있어 고무적

이었다. 1기 상담원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8주간의 상담실습교육 마치고 제2기 상담원 활동시작

본 상담소 제2기 상담원들은 1992년 3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16주간 실시되었던 상담원 교육(여성학교육/상담교육)과 8주간의 상담실습교육을 마치고 10월부터 상담활동을 시작했다. 제3기 상담원 교육은 내년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상담사례 연구모임

상담부에서는 (부장:이명선) 상담활동을 평가하고 상담원 지속교육을 겸한 제7회 상담사례연구모임을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김현 식선생님(산부인과 전문의)을 모시고 그동안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오면서 산부인과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집단상담모임 준비회

본 상담소에서 지난 1년반 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해온 결과, 전화 상담으로는 지속적인 상담의 한계를 느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집단상담이란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사람 혹은 두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이다.

성폭력 상담소의 집단상담의 목표는 ①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피해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②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고 ③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존감·정체감·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 집단상담은 성폭력을 경험한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8~10명의 구성원이 90분씩 주1회, 모두 12주 동안 실시하며, 도중에 새로운 인원을 참가시키지는 않는 폐쇄상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고석주(본 상담소 이사)·장영복(본 상담소 상담원)·이명선(본 상담소 상담부장)·변혜정(본 상담소 간사)·정혜원(본 상담소 상담원) 등 5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프로그램 내용을 만들었으며, 9월 중 매스컴을 통한 간단한 홍보와 함께 집단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희망자수의 부족으로 잠정적 보류되었다.

프로그램위원회의 추후 계획을 위한 모임에서의 원인 분석 결과, ① 일반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② 대상인들이 어떤 특정집단(예를 들어 정신병원환자들의 정기집단치료나 학교학생들의 방과후 집단상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한 12회(3개월)의 기간이 너무 길어 무리가 있고 ③ 전문정신과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상담소에서의 무료 상담에 대한 신뢰성 부족 ④ 성폭력 피해경험의 노출 꺼림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어 아직 집단상담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원 교육에로의 활용과 본 상담소 내담자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집단 모임의 응용 프로그램으로의 재편성 등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다.

사단법인 등록 추진

본 상담소가 지난 해부터 준비해오던 사단법인 등록을 강간위기센터 건립을 앞두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임시총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제29회 전국여성대회 홍보물코너 참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제29회 전국여성대회가 지난 10월 8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부대행사로 마련된 홍보물코너에는 본 상담소를 포함하여 11개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상담소는 그동안 발간한 각종자료집과 호루라기를 판매하고, 상담소 소식지「나눔터」와 상담소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소 이래 현재까지 2천 5백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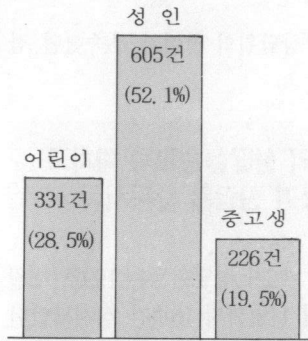
작년 4월 13일 개소 이래 9월말 현재 2천 5백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체 상담 건수 중 성폭력 피해 유형을 분류해 보면 <표 1>, 강간이 9백 7건으로 전체 상담의 36.3%를 차지한다. 그리고 재상담 6백90건 (27.6%), 기타 5백 59건 (22.4%), 성추행 2백55건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재상담이 27.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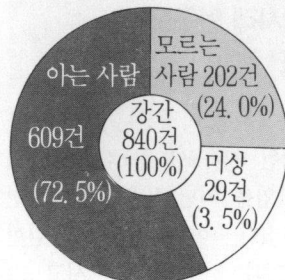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강간·성추행) (1162건)를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성인이 605건 (52.1%), 어린이가 331건 (28.5%), 중고생이 226건 (19.5%)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강간사건 8백40건중 72.5%가 근친, 친척, 이웃, 선배, 친구, 직장동료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행이었으며, 24%인 2백2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

최근 상담 경향을 보면 고소사건의 증가로 9월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담만도 8건에 달하고 있다.



<표 2> 성폭행 피해자 (강간, 성추행) 연령별 분류



<표 3>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840건) (운간 67건 제외)

원주 사건, 모두의 패거!!

91년 12월 직장내 성폭행으로 본 상담소에 상담해온 내담자 ○씨가 용기를 내어 고소했다가 꽃땀으로 몰려 92년 2월 25일 무고죄로 구속되었다. 4월 15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판이 있었다. 검사의 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선고공판이 1회 연기된 후 10월 14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내담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한데 부둥켜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님을 비롯 원주 소비자시민의 모임과 본 상담소의 공동노력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신 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변호를 맡아주신 김정삼 변호사님께서는 본 사건의 이해를 위해 부인의 도움을 비롯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원주 기독교병원 산부인과의 이명순 선생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서면서 '내가 겪을 어려움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크진 않을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두하셨다고 한다.

무고죄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서 내담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 모든 함께 한 이들에게 힘을 준 패거였다.

김보은·김진관 사건 상고하다.

13년간 의붓아버지에게 반인륜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친구 김진관과 함께 성폭행 가해자를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났다.

지난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재판관:이 순영) 김보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진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공동대책위(위원장:박상희, 최영애)에서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과 거리홍보전을 통해 김보은, 김진관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고, 우리사회의 엄청난 권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정당방위를 다 시한번 명확히 하고 9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보은은 보석신청을 거부해 계속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0월2일 판사직권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김진관은 10월5일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대위에서는 상고심에서도 20명의 공동

상담유형분류표 1991년 4월~1992년 9월

피해유형	가 해 자			피 해 자			소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강 간 907 (36.3%)	아는 사람 609	근 친	친인척	15 20	24 13	60 32	99 65		
		이웃 데이트상대 직장상사·동료 부부강간 기 타	39 88 145 3 40	18 21 2 2 15	56 18	113 109 147 3 73			
			모르는 사람 (202)			93	57	52	202
			미 상 (29)			12	5	12	29
		운 간 (67)			35	31	1	67	
	성추행 255 (10.2%)	아는 사람 170	근 친	아버지·오빠 친인척	2 6	9 5	19 12	30 23	
			이웃 데이트상대 직장상사·동료 기 타	9 7 22 11	7 4 3 5	44 4 1	60 15 25 17		
모르는 사람 (53)				30	7	16	53		
미 상 (6)				2		4	6		
음란전화 (26)			26			26			
혼인빙자			71 (2.8%)			71			
남성 피해			14 (0.6%)	6	4	4	14		
기 타 559 (22.4%)	성 문 제			66	7	7	80		
	인신매매			4	2		6		
	아내구타			20			20		
	장난전화			39	24	1	64		
	기 타			349	33	7	389		
재상담 690 (27.6%)	강 간 운 간 성 추 행 혼인빙자 남성피해 기 타			437	54	199	690		
	가해자상담			4 (0.2%)	3	1	4		
	통 계			1,600	350	550	2,500		

* 편의상 청소년은 중고생, 어린이는 국민학교생 이하로 분류하였다.

K읍 어린이 성폭행

유치원 시절부터 국민학교 4학년까지 주인공 남자가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어머니에 의해 밝혀져 K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별 진전이 없다가 가해자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1992년 9월 18일 피해자 어머니가 본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한 후, 김강자 경정에게 의뢰하여 증거 미약 부분을 녹음으로 보완, 1992년 10월 1일에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로 송치했다.

보은 - 진관은 무죄이다

최영애 / 본 상담소 소장

올해 1월에 발생한 의붓 아버지 살해 사건, 세칭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9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2심에서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진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현재 2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스컴과 일반인의 비상한 관심과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그것은 이 사건이 비록 의붓 관계이긴 하나 근친 성폭력 사건이자 존속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의 지속적인 쟁점은 성폭행과 살인 행위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였으며 이에 따라 동정과 질책이 엇갈려 왔다. 또한 사전 초기에는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뿐 아니라 일반인도 왜 달아나지 못했나 과연 죽이는 길 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 과정을 통해 보은양이 겪어온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피해 상황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은 정신적 억압과 공포, 그로 인한 피폐된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정신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설명되면서 의혹들은 거의 소멸되어 갔고 이들의 행위가 생존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구책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은 참작되어지나 그들의 행위가 한 인간의 생명권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들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성폭력이 비록 직접적 살인 행위는 아닐지라도 피해 여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정신적 살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성폭력은 단지 정조를 침해한 신체적 폭력 범죄가 아니다. 대다수 피해 여성들이 일생을 불안, 공포, 죄책감 등의 강간 쇼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 분열,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단지 그 피해가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휴유증이 즉각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한 여성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과 존엄성을 말살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는 분명 살인 행위에 버금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보은-진관 사건은 일방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 아이 때부터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왔으며 계속적인 성폭행 위협 아래서 서서히 죽임을 당해 가던 한 연약한 여성의 생존권 회복에 관한 사건이며 한 여성의 죽임을 되살려 놓은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이들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은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과 인격권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일지

다음은 92. 7. 20~92. 24까지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 또 다른 '보은'이가 고통받고 있다.

- 40대 남자가 부인이 친정간 사이 2차에 걸쳐 의붓딸 성폭행 (8/27 한겨레)

☞ 강간은 젊은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다.

- 혼자 등산은 50대 주부 둘로 머리를 맞고 실신한 후 강간, 성폭행 (8/23 한겨레)

☞ 아직도 여자는 정조가 생명보다 중요한 시대인가?.....

순결 이데올로기가 낡은 비극

- 3년전 성폭행 경험에 죄책감, 결혼 앞두고 바다에 투신, 실종 (9/16 세계, 경향)

- 고교 입시 앞두고 '백일주'하자 피어 중학3년생이 후배1학년 여학생 성폭행 (9/3 한겨레, 9/4 중앙)

- 중학생이 강도 강간 36차례, 주로 여자 혼자 사는 셋방침입 (9/10 세계, 한겨레)

- 야영장, 해수욕장에서 여중 여고생 집단추행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 (7/26 중앙, 세계 8/7, 8/20 한국)

- 여고생 유인 성폭행 (7/29 세계) 여고생 4명 권총 위협 성폭행 8/12 세계, 동아)

- 30대 남자에게 강제 납치당한 여고생 몸값 (2백50만원)주고 풀려나 (9/9 세계)

☞ 전도사, 사회사업가, 교사, 대학생 중에서도 성폭력가해자 속출

- 신학대생 전도사 여고생 상습 추행 (7/30)
- 40대 재활원장이 병원장 부인 성폭행 9억 갈취, 폭로 위협 (8/16 한국)
- 60대 국교교사가 제자 13명을 2차례에 걸쳐 추행, 학부모들이 고소 (9/7 세계)
- 30대 학원강사가 여수강생 상습 성폭행 (9/17 세계)
- 대학생 긴 강도 20대 부녀자 유인 성폭행 (8/17 세계)
- 간호조무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6개월주부 성추행 (8/13 세계, 중앙)

☞ 서비스 엉망인 택시기사들, 시키지 않은 성폭행 서비스

- 택시 운전사 여자 승객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얼굴에 염산 뿌리고 나체 사진 (9/16 한국)
- 택시 운전사 4명이 유부녀 상습갈취, 모텔서 「현장」촬영, 폭로협박 (9/17 경향, 세계, 한국)

☞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 모두에게 가해지는 악질적 폭력이다.

- 이스라엘에서 산책나온 30대 남자가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3명의 여자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고 놀림감 될까바 고소도 못하고 고민. (9/17 경향)

편집자주 이번 나눔터 5호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성폭력 사건 일지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92. 7/20~9/24일 까지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들을 정도의 심각성이나 통념에 반(反)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추려서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녀막의 신화를 깬다

“처녀막의 유무, 첫 성관계시의 출혈 유무로 인해 순결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의 도식은 남녀 모두 누구나가 수학공식처럼 알고 있다. 이러한 통념을 반영하듯이 상담전화도 처녀막·처녀막 재생수술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다. 이번 나눔터에서는 이상의 통념을 깨기 위하여 처녀막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자세한 내용을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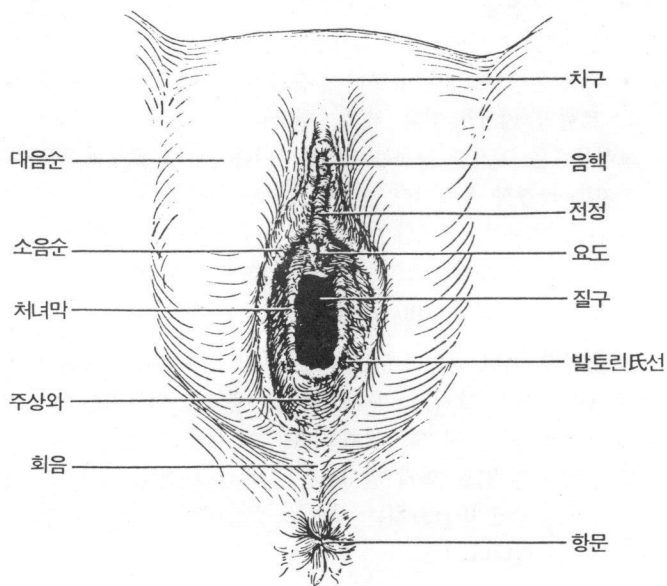
처녀막(HYMEN)이란

- 어원: ①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지켜 준다는 수호신
② 신혼초야에 역할을 신랑에게 맡기고 영영 떠난다는 신화속의 신
- 구조: ① 해부학적으로 질과 전정을 구분하며, 표피점막과 표피하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서 질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두께의 질점막이 주름잡혀 먹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② 소혈관은 발달되어 있고 신경조직은 많지 않다. 분비선이나 근육조직은 전혀 없다.
③ 모양, 두께, 직경, 경도는 매우 다양하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
- 기능: 대부분 첫관계에서 몇부위로 파열되는데 후부로의 파열이 가장 흔하다. **반드시 출혈이 동반되지 않는다.**

요즘 시술되고 있는 처녀막 재생수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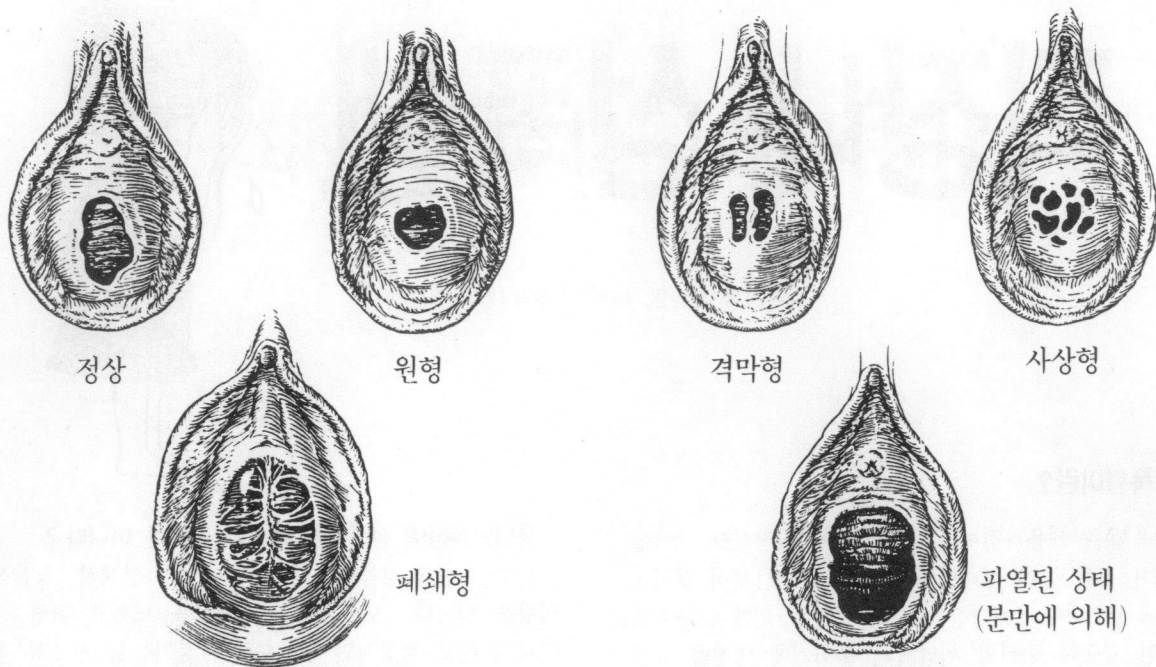
처녀막 재생수술은 질성형술, 순결수술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세계대백과사전(1989,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에도 단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의사들이 보는 의학사전에도 단지 몇 줄만 개략적으로 쓰여 있을 정도로 비공식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봄·가을, 직장의 휴가 기간 전후인 여름에 수술에 대한 문의가 많고, 한달에 4~5명, 많으면 10명까지 시술하고 있다고 한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여 10~20분 가량 걸리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극복이 중요하므로 상담까지 한두시간 걸리게 된다고. 수술방법은 성교시 출혈과 적당한 통증에 알맞은 기술을 요하며 비용은 산부인과 시술시 육십만원~일백만원, 성형외과 시술시 일백오십만원~이백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후유증으로는 성교시 출혈이 많을 수 있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것이므로 지속적인 후유증은 없다고 한다.

성숙한 여성의 정상적인 외부생식기를 바로 압시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가?

실수이든 불가항력적이든 결혼 전의 성관계는 새로운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왔다. 여성의 인격을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순결이 중요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결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처녀막 유무의 여부, 즉 첫 관계시의 혈흔을 중요시하는 우리 현실에서 처녀막은 여성들의 중요 관심사인 것이다. 특히 가문을 잇는다는 품행방정함을 요구하는 시대식구들과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시술되는 처녀막재생수술에 대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순결콤플렉스에 빠진 여성들은 100%의 성공률과 0%의 후유증을 보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순결에 과민한 남성들이 신혼여행에 가서 성관계 전에 미리 검사, 확인하기도 하고 출혈이 없다고 밤 2~3시에 감별을 요구하며 병원을 찾고,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결벽증세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시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김현식선생님(산부인과전문의, 의료자문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다.



치녀막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봅시다.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20대 여자, 학생)

신혼 첫날밤을 보내고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간다고 한다. 순결을 상징한다는 '치녀막'의 존재의 유·무에 의한 그녀의 치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한 운동이나 개인차에 의해 치녀막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런 하얀 그물막 하나로 치녀성을 가린다면 남자에게도 '총각막'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녀의 정신적 순결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30대 남자, 회사원)

만약 나와서 만남 이전에 다른 관계가 없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나와서 관계에 충실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구태여 지난 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성도 남성도 순결복플렉스에 사로 잡히지 말고 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대 여자, 주부)

너무 억울하다. 치녀막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싫고 그것으로 치녀인지 아닌지 평가받기도 싫다. 나는 분명 첫관계인데 첫날 밤 혈흔이 없다고 남편이 실망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웠다.

남자가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해 주듯이 여자가 태어나면 그러한 조치를 처음부터 하면 좋겠다. 아니면 결혼선물로 '빨간 물 주머니'를 신부에게 주면 이러한 찻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30대, 한 아이의 엄마, 2기 상담원)

상담실습을 받는 동안 내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녀막 손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치녀막 재생수술을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치녀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치녀막으로 순결여부를 가린다는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담소의 '치녀막 재생수술'에 관한 많은 문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주간지나 여성잡지 등의 대중매체의 잘못된 전달때문인 것 같다. 치녀막에 관한 일반 상식 뿐 아니라 그 옆에 치녀막 재생수술에 관한 병원 선전 문구와 함께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결혼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기사를 수록하여 많은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들에게 순결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더 나아가 잘못된 순결관을 심어 주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치녀막에 관한 지식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치녀막 재생수술이 필요한 것이며 남성들도 불행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집착으로 때때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30대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

부부 상호 간에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과거의 성관계 경험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로서 치녀막을 상실해서 두렵다는 여성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이 과거에 얼마이지 말고 새로 거듭나도록 심리적인 도움을 위하여 자문도 해주고 치녀막 재생수술을 실제로 하기도 한다. 즉 의학적인 시술로 심리적 상처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인공적으로 치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폭행

김지혜 / 상담원,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2학기



직장내 성폭행이란?

‘직장내 성폭행’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거래처 직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이다. ‘진정한 개인의 의사’란 위계적 권위에 의한 암시적인 강요나 주위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무기간’이라 함은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는 전(全)기간을 말한다. 또한 직장내 성폭행에 있어 ‘성’이란 ‘Gender’의 의미가 아니라 ‘Sexual’의 의미이므로, 성적인 의미를 띠지 않은 단순한 구타나 폭행은 직장내 성폭행에서 제외된다. 결국 직장내 성폭행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직장내 성폭행의 다양한 형태는?

직장내 성폭행은 크게 성추행과 강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형태를 자세히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②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 ③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④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⑤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⑥ 성적인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주거나 외설적인 책·글 등을 보게 하는 것. ⑦ 뽀여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 ⑧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⑨ 상대방의 의지에 반(反)하여 만지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것 ⑩ 상대방의 의지에 반(反)하여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것 ⑪ 성적봉사나 성관계가 명백하게(혹은 암암리에) 여성을 채용하는 데 조건이 되는 것. ⑫ 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현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것, 혹은 좋은 업무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 대신에 성적 요구를 하는 것 ⑬ 강간미수 ⑭ 강간

직장내 성폭행의 통념과 실제

통념1:직장내 성폭행이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이다?

1991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 중 15.4%가 직장내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3.6%가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4%는 성적인 폭언을 경험했다고 한다. 언어폭행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피해여성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이러한 폭행은 직장 내에서 너무나 일상화(日常化)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성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성폭행은 직장생활의 일부로 여겨져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통념2:직장내 성폭행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각종 직장내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영향을 받는다.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적 영향은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정신치료·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또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직장내 성폭행은 노동조건의 악화·노동의욕의 상실·인간관계의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피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직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직장내 성폭행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문제이다.

통념3: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추근거림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은 즐기거나 만족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당하거나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특히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성적농담은 상대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농담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능력을 저하시켜 생산성을 낮추는 것이다.

통념4:직장내 성폭행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불쾌한 성폭행을 경험하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 혹은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 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성폭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념5:직장에서 성적으로 차근덕거리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성폭력가해자중에 정신이상자는 거의 없다. 이는 오히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여성을 정복하고 꿈쩍 못하게 하는 것이 ‘남성다움’으로 여겨지는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그대로 내면화한 결과이다. 직장내 성폭행은 남성들의 권위와 지위의 표현이다. 남자들은 상사나 동료들한테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그들과 맞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

한 분노나 절망을 직장과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여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 ①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이런 대응은 갑작스럽게 할 수 없으므로 평소에 자기주장을 확실히 하는 습관을 기른다.
- ② 일기를 써서 기록으로 남긴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과 기분 등을 적는다.
- ③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시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
- ④ 편지를 쓴다. 사무적인 태도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기분과 가해자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는다.
- ⑤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소등의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 ⑦ 다음과 같은 경우엔 조심하고, 이에 대해 다른 여성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한다.

° 고용자나 상사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일을 핑계로 나올 것을 요구할 때-일단 다른 동료에게 확인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여직원과 함께 가도록 한다.

° 회식이나 야유회 후에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 제공을 제의해 올 때-이런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방향의 여성끼리 같이 귀가한다.

° 부인과의 불화 등을 내세워 저녁식사를 제의하며 고독을 토로할 때-직업으로 만난 관계임을 명확히 밝힌다.

° 올바른 성이나 사랑에 대해서 동료들끼리 함께 토론을 한다.

° 동료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될 수 있으면 혼자 남아 있는 기회를 줄인다.

⑧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때에는 여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이전에 여직원이 자주 바뀌었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그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남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연애는 남녀간에 합의가 존재하는 반면에 성폭행은 일방통행인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일방통행이라면 환영받지 못하는 성폭행이다.

- ① 직장상사일 경우, 자신이 부하에게 하는 태도를 생각한다. 자신이 하는 칭찬이 쓰다듬는다거나 가볍게 치는 식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중지한다.
- ② 여성이 싫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 ③ 여성을 평가할 때 업무에 관한 것에만 한정한다. 같은 동료로 보지 않는 태도가 문제를 낳는다.
- ④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거나 웃지 않도록 한다.
- ⑤ 성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여성들의 말을 믿고 도와주도록 한다.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① 동료들에게 알려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게 한다.
- ②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알려 가해자의 처벌(예, 해고, 부서이동, 감봉, 각서쓰기……)을 요구한다.
- ③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 가해자(고용주)에 대한 공동대처(예, 사과를 받아내기, 보상 요구, 각서 쓰기…… 등)를 한다.
- ④ 가해자(혹은 작업장)를 지역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신고한다.
- ⑤ 노조가 있는 경우, 직장내 성폭력을 신고·접수할 수 있는 여성부나 전담부서를 개설한다.
- ⑥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지속적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상담기관과 협의한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

- ①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불안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예방교육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도록 한다.
- ②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말하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알아 본다.
- ③ 가해자로부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가해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삶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인식시킨다.
- ④ 가해자의 행동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나눔터 그림

반쪽이



유아기의 성과 성교육

—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황은자/이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성교육이란 말 그대로 성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인간이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이 사회속에서 술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곧 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특정 기간에만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 18개월정도 되면 남여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성정체감(sex identity)을 갖게 된다. '성정체감'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모방하고, 성역할을 체득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후에 관찰을 계속하면서 남녀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도 알게 된다.

남녀의 차이를 깨달으면서 질문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특히 동생을 보았거나 대중목욕탕에서 다른 모양의 성기를 보고 놀람과 함께 의문을 품게 된다. "엄마 재는 왜 없어?:" "엄마 재는 앞에 뭐가 달렸어?" "엄마 나는 왜 없어?"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중요하다.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 "남자는 몸 밖에 나와 있지만, 여자는 몸안에 있어"라는 '위치상의 차이'를 인식시켜야 한다. 혹시 남자는 자지가 있고, 여자는 있어야 하는 데 없어진 것으로 가르쳐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설명은 남성은 온전히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여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남성우월의식과 여성비하의식을 낳게 한다. 또는 남자아이에게 "너 엄마 말 안들으면 고추 따간다"는 식의 공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말은 반대로 여자는 말 안들어서 고추가 없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나머지 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사진찍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것 또한 여자아이들에게 없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에게 우쭐대는 태도를 갖게 하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 열등감이 큰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린시절의 성기숨배 기억을 되살려 성기노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아이에 대한 지나친 성기강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기에 자주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동생을 보았거나 옆집에서 아이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출생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엄마 난 어디서 났어?" 라든가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쑥스러워서 얼버무려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배꼽으로 났어' 혹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혹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셨어' 등 추상적이거나 엉터리 대답을 하고 위기를 모면해서 안도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또한 아이는 질문에 꼬

리를 물며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배꼽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 '어디에 있는 다리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어? 그럼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를 선물로 달라고 하면 돼?' 등등. 더 이상 아이의 질문에 응할 밑천이 거덜나게 되며, 이때 엄마는 아이에게 넌 어린애가 별걸 다 묻는다는 식의 핀잔으로 묵살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곧 엄마의 대답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성의하거나 회피하는 엄마의 반응에 대해 뭔가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의 증가와 함께 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죄의식 내지는 수치심과 연결시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엄마에게 질문하기를 꺼리면서 혼자 고민하게 된다. 아이에게 핀잔이나 질책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답하기 어려운 때에는 '엄마가 다음에 알려 줄게'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

유아기에 나타나기 쉬운 또 다른 현상은 아이들이 손을 바지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옷이 꼭 끼거나 장난감 놀이에 실증을 느껴 흥미로운 일을 찾고자 할 때 혹은 자위행위를 위해 하는 행동일 수 있다. 이럴 때는 거친 말과 함께 손을 강제로 바지에서 빼기 보다는 다른 흥미거리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관심영역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

강조하건데 성교육은 사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과정 전체에 걸쳐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일차적인 성교육자로서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질문에 즉시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확신없는 엉터리 대답은 피하고 자신이 없을 경우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둘째, 성기나 생리현상을 말할 때 은어나 속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올바른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잠지'와 '고추'는 '자지'라는 말로 '봉지'는 '보지', '딸딸이'는 '자위행위'라고 하므로써 그동안 욕으로 사용되어 왔던 생식기 명칭의 제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리현상이나 생식기용어를 사용할 때 감정을 섞고 웃거나 쑥스러워하기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객관적인 설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때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네째, 개방적인 성문화 풍조로 조속해지는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자녀의 성숙과정을 현실로 직시하여 늘상 아이로만 머물 것이라는 희망사항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성의식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뽀뽀와 키스

이계중/두 아이의 엄마, 2기 상담원

딸딸이 아빠인 남편은 현관문을 열기 무섭게 달려드는 두 딸아이를 양팔에 안아올리며 양볼을 갖다댄다.

“자, 아빠한테 뽀뽀해!”

그러자 여섯 살 난 큰 딸아이가 말한다.

“아빠, 나 뽀뽀 안하고 키스할래.”

“응? 키스? …… 어떻게 하는 건데?”

“응, 키스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굴을 반대편으로 하고 이렇게 입술을 비비는 거야.”

큰 딸아이는 아빠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져다가 마구 비벼댄다.

평소 아이들의 응석을 거의 받아주던 편인 남편은 이번에도 딸아이한테 키스(?)를 당하고 마냥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는 당황해한다.

“너, 어디서 봤니?”

“응, 텔레비전에서 봤어.”

딸아이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라도 한 양 의기양양해 한다.

“애들은 그렇게 하는거 아냐!”

“왜애?”

나는 더욱 당혹스러워진다.

“키스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딸아이한테 설득력이 없었나 보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딸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키스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지마!”를 반복했고, 딸아이는 “왜애?”를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날인가부터 딸아이는 “왜애?”를 하지 않게 됐고, 키스(?)도 하지 않게 됐다. 지금은 T.V에서 키스장면이 나오면

딸아이는 간지러운듯이 혼자 웃는다. 딸아이는 키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걸까? 딸아이한테 뽀뽀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것이지만, 키스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집은 우물이 옆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T.V에서 김일의 레스링이 있던 날이면 우물을 넘어 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집도 T.V를 들여놨다. 그 즈음에 식모 언니에게서 연애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T.V에서 소위 연애하는 장면이 나오면 어른들은 슬며시 웃고, 어린 나 또한 괜시리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곤 했지만, 그 당시 키스 장면조차도 T.V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성이 개방된 분위기여서 어린 아이들도 T.V를 통해 쉽게 성적인 장면을 보고 듣게 되니까 자연 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오게 된다. 성이 은폐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남자를 조심하라는 엄마의 주의만 듣다가 결혼한 나에겐 아직까지도 성은 무의식 속에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나 보다. 나는 딸아이를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을 무조건 감추려고만 했던 것 같다. 아니, 감추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것을 알지만, 나 또한 성에 관해서는 부모에게서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던 것 같다. 더 이상 딸아이의 물음에 우물쭈물 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성교육에 관한 책들을 뒤져 보기 시작했지만, 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내가 겪은 성폭력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란 말인가?

이숙희/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극복하려는 30대 주부, 교사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한꺼번에 몰려 자는 일이 빈번했다. 가난했고 식구수는 많았으니까. 할머니네 가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해장국집을 하는 곳에서 방 두개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네 동생들 그리고 삼촌이 나누어 꼭차게 자곤 했다. 일곱살 때였나? 하루는 자고 있는데 내 밑을 열심히 파헤쳐보고 만지는 삼촌을 발견하였다. 난 놀랐지만 그게 무슨 짓인지 몰라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면서 삼촌은 그 짓을 그만두었고, 나도 다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자 버렸다. 사춘기에 접어들 삼촌이었고 그 이상은 아마 조카인지라 엄두를 못내었던가 보다. 그때는 기분이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있는 후에 성적 호기심이 더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후에도 우리 엄마는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기 때문인지 어른 남자와 같이 자는 것에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아 난 묘한 경험을 꽤 했다. 세들어 사는 주인집 총각의 뽀뽀하게 된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던가 하는. 그리고 서산에 살 때였는데 근처에 사는 한 아저씨가 동네 조무래기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좋은 것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며 흰 액체를 쏘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도망쳐 내려왔지만, 그런 성도착증 환자는 성장하면서 꽤 많이 보았다. 버스안에서든 전철안에서든.

어쨌든 자라면서 주위로부터 순결 교육을 받으면서 난 더럽혀졌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삼촌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삼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업도 갖고 결혼도 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당했던 행위들이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순결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꽤 어리석은 일이라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별 수 없었다.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 속에 의심은 늘 남아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얘기하려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란 말인가?

성폭력으로 평생 짓눌려 있는 여성들을 위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내가 당한 일은 요즘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선 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당당히 말하고 깨어나 자유로워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TV속의 여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박미라/전 여성신문 기자

인종과 희생의 그늘에서 눈물짓는 여인상,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나 나올듯한 이상적인 어머니, 아내상은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는 탓일까.

할말은 하고, 당한만큼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당찬 여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요즘들어 부쩍 늘어났다.

문화방송의 <도시인>이나 <마포무지개>, KBS의 <손자병법> 등을 보면 말 잘하고 자기 주장 강한 여자들이 회사 안팎에서 남자들이 대결한다. 서울방송에서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궁합이 맞습니다>는 또 어떤가.

남편의 실수나 무관심, 무책임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고마는 '예쁜 아가'와 시어머니와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서는 법 없이 '여우작전'을 펴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매우 다르다.

10월부터 방영이 시작된 <아들과 딸>(MBC TV)은 성장과정에서 딸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문직 여성의 생활을 보다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남편의 여자>(KBS TV)도 눈길을 모은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회사원, 집에서는 현모양처인 수퍼우먼을 등장시키기보다는 좀 빠격거리고 부딪히더라도 직장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주장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애환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오히려 현실감 있다. 그런 점에서 바쁜 의사 아내를 멀리하고 바람 피우는 남자의 애기 <남편의 여자>도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다.

그러나 드라마의 이런 변화는 만족할만 한가? 한 예로 여성모델을 등장시키는 광고를 보자. 문화평론가들은 광고 속에서의 여자들이 점차 도전적이고도 야성적인 빛을 띄기 시작한 것을 서구

의 성개방 풍조에 맞춰 설명한다.

'절제와 근신에 엄격한 여자' 보다는 '성에 관해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여자가 남성들의 구미에 더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광고 속에서 여성들이 연출하는 도전적인 모습은 어디까지나 '성적인 측면'에 한해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서구 여성들은 이제 예쁘기 보다는 '섹시'하기를 원한다. 바르게 걸치고 치장하기 보다는 과감히 드러내고 달라붙게 입음으로써 매력적이고자 한다.

요즘 드라마의 여성들도 이런 한계를 안고 있는 건 아닌가?

실제로 능력있고 말잘하는 직장여성의 경우 그 때문에 반감될 여성적 매력을 회복하기라도 하려는 듯 현실에 직장인답지 않게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많다. <궁합이……>의 두 아내 역시 애교스러움을 넘지 못하는 바가지 굵기가 전부다. 여자가 똑똑하며, 외모가 화려해 성적 매력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극성스러운 부인이려면 애정표현 역시 적극적인 '여우같은 아내'여야 한다는 한계선을 T.V 드라마는 아직도 엄격하게 그어주고 있는 것이다.

간혹 성격 호탕하고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조연이고, 굵은테의 안경과 남자같은 목소리, 생머리가 그들의 외모상 특징이며, 예외없이 노처녀, 독신녀라는 딱지 아닌 딱지를 붙이고 있다.

여성이 유능하고, 말잘하고,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데다 수수하기까지 하면 '인간성 좋은 사람' 정도는 될지언정 한 남자의 결혼 상대자가 되긴 좀 어려비는 점을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T.V 드라마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사회에서 교묘하게 추구하고 있는 요녀와 성녀의 타협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자.

상담원 교육을 받고나서

성차별 없는 사회의 디딤돌이 되리라.

정화순/본상담소 2기 상담원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기 전부터 나는 한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여성들이 불의에 또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단순한 성폭행이 왜 그토록 여자들을 파멸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불치의 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고민하며 무력해지고 나아가서는 가정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퇴폐 향락적이고 무질서하게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런 위험성은 높아만 가고 나도 '운'에 맡긴다 할 정도로 불안해했다. 그러다가 키우고 있는 두 딸이 걱정이 되고, 매일 신문·방송 등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보다 성폭력 상담소에 나가서 그 실체를 알고 도움이 받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원 교육의 첫번째 과정인 여성학 강의 첫 시간에 박혜란 선생님이 여성학을 하면 행복감을 느낄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때는 그 말을 의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예전보다 행복하다. 나는 스스로를 진보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은 소화하기 위해 끔찍 앓기도 했다. 또 평소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은 잘 드러내지 못했는데, 여기서 많은 동지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도 하고 격려도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고와 행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두번째 과정인 상담 교육은 우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 방식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고 특히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 상담교육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자기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문화는 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고, 나도 자기를 솔직히 표현하는 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감성도 이성과 대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인간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난 몇 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받고 나서의 내 모습은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 용감해지고 단련된 것 같다. 처음에는 「성폭력 상담소」라는 말도 잘 쓸 수 없었는데, 지금은 더한 말들도 유창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생각도 많이 성숙되고 기존의 시각과 다른 견해도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

면서 나 자신이 벗어나지 못했던 부정적인 태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억압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이 모든 일은 모두에게 -특히 여성은 더욱-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지고 아픔을 당한 이들의 슬픔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뭘가에 간혀 있고 확실하지 않았던 것들이 -신경증의 원인이기도 했던-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열등한 존재로서보다 열려진 가능성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게 됐고 이것이 반대로 남성의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로의 디딤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두말을 안정된 전문직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시킬 생각이었지만 상담소를 다니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즉 성차별을 없애는 구체적인 작업이 앞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우리 큰애가 지난번 상담소 M.T때 우리가 배운 노래들을 피아노치며 흥얼거릴 때 나는 마음이 몽클해 오면서 다짐해 왔다. 너희 때는 남녀차별이니, 여성억압이니 하는 말은 이미 사어(死語)가 되어 있으리란 것을.

지상 상담

용기를 갖고 적극 대응하십시오.

문 저는 1남 1녀를 둔 주부입니다. 얼마전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이 딸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딸아이를 집 앞가게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한참후야 올면서 돌아왔습니다. 얼핏 아이를 보니 하의에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이 손가락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아팠지만 그 청년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 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불쾌해서 아이를 우선 깨끗이 씻겨서 달래고 재웠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이 일이 알려질까봐 그 청년에게 따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딸아이는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불안해 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이만 보면 속상하고 분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 가게 청년을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온 동네에 알려질까봐 고소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흔히 강간이나 성추행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상담소에 의뢰되는 강간, 성추행 중 30% 정도가 어린이성폭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린이성폭행은 더이상 쉬쉬하거나 덮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시기까지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부터 딸아이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아이나 가족이 겪게 될 부담때문에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그냥 덮어둔다면 가해자가 다시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더구

나 동네 가게라면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님의 경우 피해당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질부위에 상처가 난듯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출혈 즉시 병원에 갔어야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두십시오. 진단서는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님이 보이는 증상은 죄책감이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등에 의한 것인데 이때 부모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겠다고 안심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가해자가 아이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시인하고,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사과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은 아이가 정신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방치해 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거나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딸아이가 애처로와 눈물과 한숨이 앞서는 어머니 심정을 심본 이해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므로 어머니께서 용기를 갖고 적극 대응하십시오. 상담 :유계경

엄마

안일순 / 여성문화예술 기획위원, 희곡작가

“그래, 우리 남자대 남자로 얘기해 보자.”

이병호는 사위의 고집스런 얼굴을 바라 보며 앞자리에 놓여진 독한 양주를 한모금에 쭈욱 들이켰다. 쏘아보는 장인의 붉은스름한 눈초리를 이기지 못한 사위는 눈길을 떨구며 한시간 내내 조잡지 같았던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회정이는 이미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첫날밤 제주도에서 저는 군대 있을 때 창녀에게 동정을 잃은 일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건 충각 때 혈기 왕성한 건강한 남자라면 한번쯤 있었을 한두번 쯤의 실수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정결한 나의 아내에게 고해성사 함으로써 새출발의 선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듣고난 회정이는 이번엔 자기도 하겠노라면서 … 전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 너무도 떳떳하게 … 참을 수 없는 것은 회정이가 처녀막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정이는 그것에 대해 수치심도 죄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결혼은 신훈 첫날부터 깨진 것입니다. 장인어른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망가진 제 결혼을 어떻게 보상하십시오입니까?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줄 것입니까?”

마질듯이 대드는 사위 앞에서 그는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듣기만 하였다. 엉망으로 술이 취한 사위와 헤어지고 그는 택시를 불렀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의 머리 속은 노란 연기로 가득차면서 빙글빙글 도는 듯하였다. 차가 신촌 고개를 넘자 딸 회정이가 웨딩드레스를 맞춘 ‘첫발자욱’이라는 옷가게가 차장에 스쳤다. 몽롱한 그의 의식

속으로 결혼식날 그토록 눈부시던 딸아이의 모습이 영화필름의 환영처럼 어른거렸다. 웨딩마치에 맞춰 자기의 팔을 꼭잡고 하객들 사이로 걸어 갈 때 회정은 순백의 옷 속에서 수줍게 웃었다. 다소곳하고 뽐난 한 딸기 백합같았던 딸 회정이가 더럽혀진 년이었다니! 이병호는 딸에게 배반이라도 당한 것처럼 치밀어오르는 메스꺼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택시가 몇자마자 그는 전신주를 붙잡고 뉘뉘 독한 술 찌꺼기들을 토해 내었다. 아아 더러운 화냥년! 내 이년을 머리끄덩이를 끄들여 길거리로 패대기 치리라. 그는 취기 속에서도 콧물이 머리를 쳐들고 이년을 당장에 응징하리라, 당장에 능지처참 하리라 결의하며 자기집의 철문을 구둑발로 광광쳤다.

“그래 우리 여자대 여자로 얘기해보자” 술에 취해 번들거리는 눈으로 광포한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남편으로부터 사위의 말을 전해 듣은 아내 경진은 방바닥이 갈라지고 그대로 폭삭 땅 밑으로 꺼져드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는 몇날 며칠째 자기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딸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두터운 껍질 안에 싸여 나오려 하지 않는 딸 회정이는 꿈쩍 않는 석고상이었다. 그런 회정이가 마주앉은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요, 난 엄마의 그 결벽증이 싫었어요. 여자가, 여자니까, 여자라서, 여자들이기 때문에 … 나는 나 회정이지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여자가 아니어요. 첫생리가 시작되고부터 엄마는 나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했어요. 몸가짐을 잘해라. 여자는 한번 망가지면 끝장이다. 일찍 다녀라. 치마가 왜그리 짧니? 여자 인생은 남자에

게 달렸다 …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그 진저리나는 여자타령이 싫었어요. 난 대학에 들어간 첫 해 여름방학, 어느 이름도 모르는 놈에게 내 처녀막을 주어버렸어요. 아니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난 날아갈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앙갚은 한 것 같기도 했고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고 난 그 어떤 해방감마저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이혼 사유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거죠? 하하, 하하하, 하하. 난 오히려 비로서 혼자 당당하게 뚜벅뚜벅 내 인생을 걸어 갈 수 있다는 예감마저 느껴요. 짜릿하기까지한.”

그녀는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낯설은 딸의 얼굴을 보았다. 딸의 몸은 점점 커져 커다란 검은 산처럼 어미를 우뚝 막아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 속으로는 은가루 같은 유리조각이 하얗게 부셔서 내렸다. 경진은 더이상 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얗게 눈꼬리를 흘리는 독기서린 눈이 꼭 마녀의 눈같았다. 딸의 입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겁이 났다. 그녀는 그대로 말없이 일어서서 딸의 방을 나왔다. 이십 오년간 공들여 쌓아온 성이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그녀의 발은 휘청거렸다.

남편 이병호는 이불 위에서 주검처럼 꿈쩍않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경진은 방안에 고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한번 후욱 들이쉬고 불빛마저 싫어 스탠드를 꺼버렸다. 어둠이 그들을 덮자 부부는 똑같이 이십 오년전으로 돌아갔다.

“경진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헉헉거리며 이병호는 그녀의 귓볼 위로 뜨겁게 달구어진 말들을 그 특유의 허스키 소리로 토해 내었다. 버둥거리며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물어뜯고 깨물며 몸부림 쳤지만 사내의 억센힘을 당하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탈진해 늘어졌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밖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병호가 건넌 술은 독주처럼 그녀의 피와 육신을 알코올에 절여 놓았다. 거미줄에 붙잡힌 나비처럼 그녀는 결사적으로 파닥거렸지만 거미줄은 움직일수록 더 조여왔다. 마침내 병호는 그녀의 깊고 깊은 곳에 정복의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내 여자 너는 이제 내 여자가 된거야’ 하고, 그는 사내로 태어나 인생이란 누가 먼저 상대를 때려 눕히느냐 하는 결전장이라고 배워왔다. 사내에게 있어 인생은 한판 승부이자 투쟁이었다. 적자생존이요 약

육강식인 이 세상에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달린 것이다. 사정을 끝내자 그는 친구 윤식의 안경 쓴 허여멸친한 얼굴을 떠올렸다. 이병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경진의 마음은 정작 학교 동창인 김윤식에게로 가있었던 것이다. 그 둘의 결혼 소식은 병호에게 파멸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윤식보다 자신이 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경진이 없으면 그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 방법 밖에 없었다. 사랑하기에,

차갑고 냉랭하고 거만하던 경진이 임신이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엔 거부하고 송충이를 보듯 외면하며 침까지 뱉었지만 배가 불러오고 소문이 퍼지자 온순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되어 눈을 내려 깔고 말없이 고개만 숙었다. 장인은 임신한 딸을 병호에게 주었다. 경진은 끝까지 자신의 팔자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윤식의 돌변한 태도에 질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순순히 자신의 인생을 병호에게 맡겼다. 아니 그녀는 뒤 돌아서 윤식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남자의 여자가 된 그녀는 결혼 이십오년 동안 한번도 성의 쾌락을 못 느꼈다. 섹스란 그녀에게 있어 금기요, 죄악이요, 불결이요,

수치요, 무서운 삶의 덫일 뿐이었다. 애지중지 기른 딸 희정에게 만든 그 덫에 걸려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한때 무용가로서 무대에 서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버렸다. 경진에게 있어 딸 희정이만이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꿈의 전부였다. 경진은 스스로 딸에 대한 집착과 병적인 간섭이 지나침을 알고 거두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희정이 커가면서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예쁘고 탐스러워질수록 그녀는 조바심쳤다. 행여 꺾일세라, 행여 손탈세라.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당신 딸을 어떻게 키운거야? 더러운 화냥년이 내딸이라니!”

경진은 느닷없는 남편의 거칠은 목소리에 움찔놀랐다. 그러나 순간 이십오년 동안 무의식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무어라 이름 붙일수 없는 그 무엇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단어를 수면 밖의 의식으로 끌어내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래 딸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딸년이 처녀가 아니란 것도 몰랐단 말이야”

신경을 끊는 듯한 남편 특유의 허스키 목소리는 그녀가 안타까이 붙잡으려 하는 알듯말듯한 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붙잡게 해주었다.

‘사랑해 사랑해’ 그날 그녀의 귀에 대고 뜨겁게 속살대던 사랑이라는 허물을 찢고 훑쳐내고 괴물스런 시커먼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갈코리에 정확하게 잡힌 그 단어를 힘껏 나뼉 채었다. 강간범! ... 그녀는 펄프질을 하듯 목안에 감긴 그 단어를 끌어 올리며 쉿소리로 외쳤다.

“이 강간범! 그래 바로 너야! 나를 겁탈한 건 바로 너야! 아아 강간범하고 이십오년간을 살다니! 강간범에게 나를 주다니 내 인생을 맡기다니!”

경진은 속에서 불끈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솟구치듯 일어나 맹수처럼 남편의 정수리를 물어뜯었다. 갑작스런 아내의 돌격 앞에 정신을 잃은 남편 이병호는 아내에게 깔린채 헉헉 거렸다. 믿을 수 없이 무시무시한 장사 같은 아내의 힘에 저항해 일어나려 했으나 사지만 맥아리 없이 허우적 거릴 뿐 그는 더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개구리처럼 버둥거리며 그는 딸 희정이를 불렀다.

“살려줘! 희정아! 이 여자가 날 죽인다. 살려줘”

성폭력 상담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상담소는 공공기관보다는 부담감없는 따뜻한 장소라는 특성을 살리기를...

김강자 (서울특별시 경찰국 민원실장·법률자문위원)

김강자경정(46)은 현 서울특별시 경찰국 민원실장으로, 5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서울시경의 모든 문서를 관장하고, 서울전역의 유실물센터, 잃어버린 사람이나 차량을 보호하고 찾아주는 182센터, 경찰에 관한 고소, 고발, 탄원등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특히 모든 대여성범죄를 상담하고 처리, 서울시 여경들의 복지와 친목을 도모하고 관장하는 일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중학생, 국민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철저한 업무태세로 민원실을 이끌고 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에 와보고 너무도 순수하고 지성적인 분위기와 열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며 내담자들에게 공공기관보다는 부담감없이 따뜻하게 여길 것이라고 그 특성을 살릴 것을 당부하였다. 경정님은 그동안 법적인 처리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큰 도움을 주었다. 실제 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일, 고소하려는데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고소했는데도 어떤 증거를 갖춰야할지에 대해 조언해주고, 녹음, 현장보존, 증거도출유도, 잠복수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다. 다음번에 계획하고 있는 상담원 사례모임에도 실제 수사상, 법률상 문제 등을 강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올바른 성인식과 성교육,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애쓰기를...

김현식 (의료자문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지난 2기 여성학 강좌에서 청일점 김현식씨(36)가 수강을 하였다. 강동구 둔촌2동 59-2에 위치한 「김현식 산부인과」의 원장인 그는 남녀공동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이다. 전남대의대교수였던 선친의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양심을 지키라”는 가르침과, 카톨릭계통의 교육의 영향으로 신뢰와 진실을 지켜가 고자 애쓰는 그는 1녀2남의 아버지이다. 지난 8월에 직접 아들의 출산을 받으면서 지식과 기술로만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의를 다시 일깨웠으며 특히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성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인식을 갖게 되어 우리 상담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치료하면서 올바른 성인식과 성교육 성문화의 확립을 절실히 느낀다며 상담소의 활동에 적극 참여, 지원하고 있다. 상담소 의료자문위원으로, 성폭력 위기센터 설립발기인으로, 보은양의 진료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산부인과 자문의로서 소외된 계층에 찾아가 봉사하고, 「수중과학회」에도 참여하여 이름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해녀들을 보살피고,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회원 할머니들의 진료를 맡는 등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담소에서 의뢰한 성폭력피해자들의 의료적, 심리적 치유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02) 522-1040~2



유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2-1040~2
법률·의료·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전화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집단상담: 내담자 모임이 이루어진 뒤 시작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상담교육)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사무봉사**: 상담소 활동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525-5838)
-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원으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가족으로서 상담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도 큰 기쁨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한일은행: 015-040018-01-001	성폭력 상담소

만든 이

기획위원: 박미라, 박혜란, 최영애
실행위원: 김영아, 변혜정, 이계중, 이윤상, 연민이, 장윤경,